

## [초점]TV3사 월드컵중계 성패도 첫 경기, 러시아전에 달렸다

등록 2014.06.17 19:10:28 | 수정 2016.12.28 12:55:30



【서울=뉴시스】SBS 차범근, 배성재, 차두리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러시아전이 관건이다."

브라질월드컵에 참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두고 대다수 축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전이 중요한 것은 대표팀만이 아니다. 월드컵 중계방송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 3사도 마찬가지다. 대표팀의 첫 경기인 러시아전 시청률에 이번 월드컵 중계방송의 성패가 달렸다. 러시아전 시청률 순위는 브라질월드컵 전체 시청률 순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사는 18일 오전 7시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주도권은 MBC가 쥐었다.

MBC는 도전자 입장이었다. 2006 독일월드컵 시청률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일조한 MC 김성주를 영입했지만,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해설자인 불세출의 축구스타 차범근을 SBS에 빼앗겼다. SBS가 2010 남아공월드컵을 단독 중계하면서 월드컵 채널의 인지도도 떨어졌다. 김성주가 축구 캐스터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이, SBS 배성재 아나운서가 김성주를 위협했다. 배성재는 유럽 축구를 꾸준히 중계하면서 축구 전문 캐스터가 됐다. 김성주는 월드컵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범근 없이 중계하는 이번 월드컵은 캐스터로서 김성주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MBC는 13일 오전 5시(한국시간)에 열린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 경기에서 SBS에 0.2%포인트 뒤졌지만, 이후 대부분의 경기에서 SBS의 시청률을 앞섰다.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8.5%) '일본 대 코트디부아르'(7.9%) 등 주요 경기에서 승리했다. 월드컵 시청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크게는 3%포인트, 작게는 0.6%포인트 높았다. 유의미한 수치다. 17일 오전 1시에 열린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도 MBC의 시청률은 3.7%, SBS는 2.1% (전반전까지 집계)였다. 방송 3사가 동시에 생중계한 네 번의 경기에서 MBC는 세 번이나 1위에 올랐다.



【서울=뉴스시스】MBC 송종국, 김성주, 안정환

김성주도 김성주이지만,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안정환-송종국을 해설위원으로 영입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안정환과 송종국은 선수 시절 플레이를 연상케 하는 해설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최고의 테크니션이었던 안정환은 톡톡 튀는 단어 선택으로 즐거움을 주고 있다. "짱났다", "숨사탕 같은 패스" 등 벌써 어록을 만들어냈다. 대한민국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이던 송종국은 해설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해설가다운 안정감을 보여준다. 캐스터로서 김성주의 능력은 검증 단계를 지났다.

서정원 수원 삼성 감독은 "두 해설위원 모두 선수 출신이어서 빠르게 전개되는 경기 상황을 즉각 이해하고 이를 전달하는 능력이 좋다"며 "재밌는 해설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축구인으로 봤을 때 시청자들에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정말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추어올렸다.

송종국과 안정환이 MBC TV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 출연해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가 됐다는 점도 MBC의 '한국 대 러시아' 경기의 시청률 전망을 밝게 하는 이유다.

MBC를 위협하는 것은 SBS가 아닌 KBS 2TV다.

당초 KBS 2TV는 MBC와 SBS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간판 조우종 아나운서를 메인 캐스터로 내세웠고, 2002 한일월드컵 또다른 4강 신화의 주인공 이영표를 해설위원으로 영입했지만, 캐스터와 해설 모두 타 방송사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용수 해설위원의 해설은 지루하다는 평도 있었다.



【서울=뉴시스】KBS2 조우중, 이영표

KBS 2TV는 개막전 시청률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방송 3사 합계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15일 일본 대 코트디부아르 경기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 경기에 대한 이영표의 예상이 모두 들어맞은 덕이다. 이영표는 경기 전 "코트디부아르가 2대 1로 일본을 누를 것"이라고 말했고, "디디에 드로그바가 들어오면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처럼 드로그바가 경기 투입되면서 코트디부아르는 역전에 성공했다.

KBS 2TV는 낯선 코리아가 집계한 '월드컵 시청률 순위'에서 10위 안에 세 경기를 올렸다. MBC는 네 경기, SBS는 세 경기였다. 16일 새벽 1시에 열린 스위스 대 에콰도르 경기는 KBS 2TV의 시청률이 SBS보다 높았다. 17일 독일 대 포르투갈 경기 시청률 또한 SBS를 앞섰다.

KBS의 강점은 안정감이다. 김성주-배성재 캐스터만큼의 인지도는 아니지만 조우중 캐스터의 진행 능력은 두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영표는 전문 방송인다운 언어구사력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기간 주전으로 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날카로운 분석 능력까지 갖췄다. 이용수 해설위원의 목소리는 축구팬에게 가장 익숙한 목소리 중 하나다. 축구 마니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한준희 해설위원이 버티고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SBS는 위기에 빠졌다.

당장 17일 새벽 1시 생중계된 독일 대 포르투갈 전 시청률이 방송 3사 중 최하위였다. 2위인 KBS 2TV와 비교해도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경기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는 아니지만 우승후보 간의 경기라는 면에서, 유럽의 정상급 클럽에서 뛰고 있는 축구스타들이 출출동한다는 점에서 축구팬의 관심이 집중된 게임이었다.



【쿠이아바(브라질)=AP/뉴스시스】홍명보와 선수들. 러시아와의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MBC와 경쟁할 것으로 보였던 SBS는 KBS 2TV와 옆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16일 새벽 4시에 열린 프랑스와 온두라스의 경기에서는 MBC를 눌렀다. 0.7%포인트 높았지만, 두 팀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을 낮고 SBS의 시청률 또한 1.9%에 그쳐 큰 의미가 없다. SBS는 중요 경기마다 MBC에 패했고, 때로는 KBS 2TV보다 낮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차범근-차두리 부자의 해설에 식상했다는 의견이 많다. 차범근은 2002년부터 월드컵 해설위원을 맡고 있다. KBS의 이용수 해설위원 못지 않게 오래 해설을 했다. 목소리는 익숙하지만, 신선함은 없다. 또 젊은 축구팬은 차범근보다 안정환, 송종국에 익숙하다. 모든 TV프로그램이 예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듯한' 해설을 하는 차범근의 해설은 지루할 수도 있다.

반대로 배성재 캐스터는 축구 마니아에게는 익숙한 목소리지만, 월드컵 때만 축구를 보는 시청자에게는 낯설다. 김성주는 얼굴만 봐도 아는 방송인이다. 캐스터는 낯설고, 해설은 지루한 상황이 된 것이다. 캐스터는 익숙하고, 해설위원은 참신한 MBC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야구 전문 캐스터로 유명한 정우영 아나운서를 월드컵 캐스터로 보냈지만, 야구가 아닌 축구를 중계하는 정우영 캐스터 또한 익숙하지 않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인 '대한민국 대 러시아' H조 2경기는 18일 오전 7시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열린다.

jb@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